



6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182장 ·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사도행전 2장 1-4절 | 다같이

“제목 : 성령이 ”

1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2그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3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4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사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겉에서 돕는 분”을 보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부활한지 오십여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십여 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질문1) 성령강림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1절)

오순절

질문2) 성령강림의 세 가지 현상은 무엇입니까?(2~4절)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남,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함

말씀묵상 | 인도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명의 제자들은 힘써 기도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은 박해의 현장이고, 제자들에게 아픔을 준 좌절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강림 사건에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첫째, 성령이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로 들려옵니다(2절). 불고 싶은 대로 부는 바람은 단순한 강풍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의 생기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 곳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고 온전하게 합니다.

둘째, 성령이 “불길이 솟아 오를 때 혀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나타나는 모습”으로 임합니다(3

절).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곳에 모인 이들의 죄와 악, 탐욕과 욕심이 태워져 거룩하고 정결해집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도 태워집니다.

셋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4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신 지역에 따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였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을 소통하게 하고 하나도 만듭니다. 지역, 이념, 성별 문화의 벽을 뛰어넘는 성령의 언어, 소통이 언어로 화해를 이룹니다.

우리들은 성령강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굳어지고 형식화된 신앙, 거짓신앙, 적당 신앙, 죽은 신앙을 성령으로 일깨워야 합니다. 죄로 이끄는 교만과 자만, 탐욕과 욕망, 헛된 자랑, 거짓과 어리석음, 절망과 낙심을 성령으로 태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소통의 언어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고 이웃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천 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한 성령을 통해 교회가 태동한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말씀적용 | 다같이

1.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2. 소통하게 하고, 하나로 만드는 성령의 인도함을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합심기도 | 다같이

마침 | 주기도문 | 다같이